

# 光復前後 公營住宅의 平面比較와 變化特性에 관한 研究

劉 載 祐

(東西大學校 建築專攻 專任講師)

## 1. 서 론

20세기에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택도 짧은 기간동안 과거에 비해 형식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재래주택의 변화는 외래문화와 접촉하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재래문화의 기반위에 새로운 변인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까지 전개되어 왔을 것이라 짐작된다.

재래로부터 지속되어 온 주택은 한 문화권 내의 생활이 투영되어 나타난 문화체계<sup>1)</sup>라 볼 수 있다.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주택의 평면에는 내외적인 변화환경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반영된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기에 있었던 주택유형의 평면에는 우리의 재래문화와 외래문화간의 문화 접촉과 근대화 과정이 독특한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시기의 주택유형 중 '공영주택<sup>2)</sup>'을 대상으로 평면변화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공영주택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시기에 새로운 주택형으로 제안된 것으로, 국가적인 차

원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건축인의 역량이 결집되었고, 단기간에 걸쳐 전국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주택 근대화 과정에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영주택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영향과 광복이후의 재래문화적 요소가 변인으로 작용하여 근대성 수용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간직된 역사적 자료라 볼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택 평면은 광복이전의 경우 일제강점기말 '공영 표준형 주택'으로 처음 등장한 적이 있었고, 광복과 6·25동란 이후 주택재건과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평면으로 계속 제안되었다. 이들 중 1940년대부터 1960년 초까지 제안되었던 공영주택 평면을 광복을 중심으로 구분해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였다. 공영주택 평면 중에서 광복전후 평면간의 비교연구에 중점을 두어, 전면이 3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11평에서 20평 규모의 장방형 평면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특수형에 속하거나 절충적인 평면형은 제외하였다(표1, 표3).<sup>3)</sup>

3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은 1941년 조선주택영단에서 제시한 갑,을,병,정,무형의 평면 중에서 전면 3칸으로 구성된 갑형과 을형의 평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면은 川端貢의 「조선주택영단의 주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에서 참조).

광복이후의 공영주택은 조선주택영단(이후 대한주택공사로 개칭)과 한국, 산업은행과 주택금융에서 발표한 자료로 한정하였다. 1954년부터 1963년까지 제안된 평면 중에서 광복이

1 임덕순, 「문화지리학」, 범문사, 1996, pp.65~68

2 공영주택이란 '대규모 공익 운영주체가 조직화되고 공급될 수 있는 생산기반과 표준적인 생활상을 전제로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공급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광복전후 공영주택 평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화특징을 살펴보고, 외래문화와의 접촉과 자율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 변화 원인을 통해 공영주택 평면이 한국 현대주택에 미친 문화적 의미와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 2. 광복전후 공영주택의 성립배경과 특성

### 2-1. 광복이전 공영주택의 성립배경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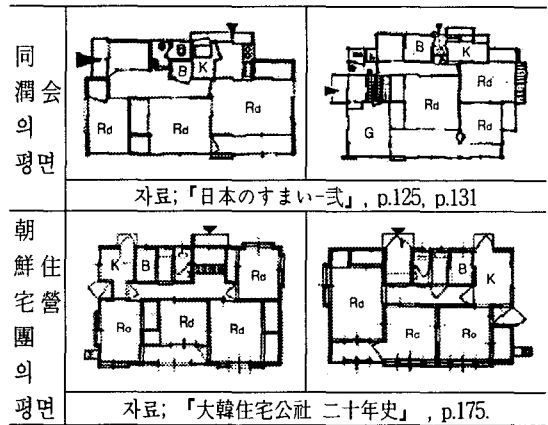
#### (1) 광복이전 공영주택의 성립배경

일제강점후기인 1930년대는 공업화와 도시인구 집중으로 주택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1941년 조선총독부<sup>4)</sup>는 주택문제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였다.

이때 朝鮮住宅營團이 채택한 공영주택은 ‘속복도형’ 평면<sup>5)</sup>으로, 1924년 關東大地震 당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해 설립된 ‘同潤會<sup>6)</sup>’에서 제안한 주택평면과 유사하다(그림1). 즉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까지 제안되었던 同潤會의 ‘속복도형’ 평면<sup>7)</sup>을 채택해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으로 일본인의 근대적 환경과 생활구조를 기반으로 한 주택유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복이전의 공영

주택은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재래문화와는 괴리된 것으로 일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표준면적을 확보해 ‘이식’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시의 공영주택은 주택이 부족해진 戰時體制下에서 주로 일본인에게 공급되었다. 주택규모에 따라 갑형에서 무형<sup>8)</sup>까지 구분해서 1941년부터 광복직전까지 약 5년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약 11,000여 호를 공급하였다.<sup>9)</sup> 이것은 당시 재래주택이 근대화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광복 후에는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생활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부분 증축되거나 변용되었다.



범례) Rd: 다다미방, Ro: 온돌방, K: 부엌, t: 화장실, B: 욕실, E: 현관, S: 창고, G: 응접실(洋間) 이하 표기 방법 동일

그림 1. 同潤會의 주택 평면과 광복이전 공영주택의 평면 사례

#### (2) 광복이전 공영주택의 평면 특성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은 면적별로 갑형에서 무형까지 다섯 가지의 기본형 중 전면이 3칸(갑형, 을형)으로 구성된 평면 사례 10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표1).

전의 공영주택과 규모가 비슷해 직접 평면간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전면이 안방-마루(또는 거실)-건넌방의 3칸으로 구성된 장방형 평면 31종을 선별하였다. (평면출처는 기존의 대한주택공사의 『한국주택 현황(1966)』, 『주택』 및 공간사의 「공영주택 평면도집(69, 1, 2, 3)」 및 학위논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4 일본의 주택보급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주택영단에서 1941년 同潤會의 주택평면을 기본 모델로 ‘속복도형’ 평면을 도시지역에 보급하였다.

5 1920년대의 일본의 근대 도시 단독주택은 속복도형 주택과 거실중심형 주택으로 유형을 대별하고 있다.(建築學大學系編集委員會, 위 책, p83)

6 同潤會는 關東大地震 복구사업을 위해 일본 內務省 산하의 사단법인체로서 발족되었다. 1926년 내무성에서 분리되었고, 1928년부터 昭和時代의 공공주택 공급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1941년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 일본주택영단으로 개조되었다.

7 西山宛三, 『日本のすまい-式』、勁草書房, 1976, p121

8 한국 노동자는 병형 이하의 소형주택에서 기거하였다.

9 대한주택공사, 『大韓住宅公社 二十年史』, 1979, pp.192~193

표 1. 광복이전 공영주택의 평면사례 및 분류

구분	년대 구성 면적	1941 ~ 1945		
		갑형		을형
		3K(20평형)	4K(20평형)	3K(15평형)
후면 출입형				
전면 출입형				
측면 출입형				

갑형은 대개 방 4개와 부엌을 갖춘 4K형의 20평의 규모이고, 을형은 방 3개와 부엌(K)을 갖춘 3K형의 15평 규모이다. 평면은 속복도를 중심으로 전열부와 후열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전열부는 다다미방(Rd)과 온돌방(Ro)을 포함하고, 후열부는 부엌과 위생공간(욕실, B와 화장실, t) 및 출입공간(현관, E) 요소를 둔 형태이라 할 수 있다.

현관은 대부분 후열부에 위치하고, 정신적 휴식을 겸하는 욕실과 재래식 화장실은 항상 분리 설치하였다. 갑형에서 후열부가 4칸 이상으로 분화될 경우는 다다미방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전열부의 다다미방과 후열부의 현관을 상호 교환 배치해 현관을 전면에 두거나(을형 9호, 갑형 9호), 후열부의 욕실과 화장실 사이에 현관이나 다다미방을 배치시켜(을형 6호, 갑형 7호) 평면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표 2. 광복이전 공영주택의 평면 구성 분석

구분	년대 구성 면적	1941 ~ 1945		
		갑형		을형
		3K(20평형)	4K(20평형)	3K(15평형)
기본형	전열 구성 개념			
	사례	갑형 8호	갑형 3, 4, 5호	을형 4, 5호
변화형	전후열 요소 교환			
	사례		갑형 9호	을형 9호
	후열부 요소 분리			
사례		갑형 7호	을형 6호	

주) 부엌 아궁이와 온돌방의 연결표시 방법:  
(이하 표기방법 동일)

평면 요소를 변화시켜 다양한 평면형이 제안되었지만, 평면 내에서 결합관계가 변하지 않는 공통점은 후열부의 부엌과 욕실(K-B) 및 전열부의 온돌방은 항상 연결되어 있고, 또한 전열부의 온돌방에 다다미방이 인접(Ro-Rd)시킨 것이다. 공통된 결합부분이 있는 이유는 물이용 및 熱源 관리 등의 설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궁이가 있는 부엌을 주변으로 온돌방과 욕실을 기능적 관계로 배치한 결과이다. 따라서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의 기본적인 단위평면은 상기의 공통된 결합요소에 현관, 화장실 그리고 추가의 다다미방을 포함한다. 즉, 부엌과 욕실에 현관을 연결한 후열부(K-Bt-E)에 속복도를 경계로 온돌방과 다다미방을 3칸으로 연결한 전열부(Rd-Rd-Ro)가 결합된 기본적인 평면형에 면적별로 변화형을 두고 있다.(표2).

## 2-2.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성립배경과 특성

### (1)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성립배경

광복이후 해외동포의 귀국과 6·25동란으로 인한 도시인구 집중으로 주택부족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외래자본을 가지고 조선주택영단을 근간으로 주택보급정책을 주도해 갔다.

광복되던 1945년 조선주택영단에서는 '국민주택 현상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당시 근대적 건축교육을 받은 전문인<sup>10)</sup>이 대거 참여해 장래 이상적인 주택형에 대한 의견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경향은 일본식 住文化에서 벗어나 재래주택 형식으로의 회귀하는 방식이나 속복도형 주택 평면을 답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작품 대부분의 평면 내용은 전열부는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온돌방을 배치하고 후열부에는 부엌, 현관 등 생활보조공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립된 것이 특징이었다.<sup>11)</sup> 이것은 향후의 평면의 변화 방향을 예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조선주택영단에서 처음 공급한 공영주택은 1954년에 건축된 소형 조적식 주택이었다. 그 후 6·25동란후의 주택복구를 위해 점차 다양한 평면형이 제안되며 전국적으로 근대도시주택 유형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부터는 민영공급체제로 전환되면서 발달된 산업기술과 건축 재료가 적용되었고,<sup>12)</sup> 설계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는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 평면변화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1960년대는 경제적 여유를 되찾게 되며 나타난 주거욕구에 부응되는 다양한 평면형이 제안되었고, 1961년까지 전국에 약 24만여 호가 건축되어 도시주택 형성에 큰 영향을 끼

쳤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민간주택의 건축인과는 달리, 공영주택 설계에 참여한 건축인은 대부분 근대교육을 받은 이로서 제도권 내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평면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다. 더구나 공영주택은 대량공급을 전제로 하므로 부재를 가능한 규격화, 단순화하였고, 근대화된 주택기술 및 설비를 도입해 도시가구에 적합한 규모와 수준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비교적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공급 초기에는 '표준형'을 일방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거주자의 희망이나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평면형이 공급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지가가 저렴한 지역에 건축되었기 때문에<sup>13)</sup> 입지 조건도 불리하였다. 그러나 1950년 후반에는 서구식 근대교육을 받고 평면계획을 주도하는 설계자가 재래식 생활에 익숙하지만 근대적 생활상을 추구하려는 거주자의 선호도를 참작해 다양한 공영주택 평면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sup>14)</sup>.

### (2)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평면 특성

광복이후의 공영주택은 일차적으로는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광복이후 서구의 문화와 근대화된 건축 재료와 기술을 반영시킨 다양한 평면형이 제안되었다. 이중에 광복전후의 공영주택 평면의 비교를 위해 전열부가 안방, 마루, 건넌방으로 구성된 1954년부터 1963년까지 10년간 제안된 평면 31종을 대상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표3).

첫째, 면적과 공간구성의 관계는 평균 15평 전후의 3LmK<sup>15)</sup>형부터 평균 18평 규모의 4LmK형으로 대별된다. 3LmK형은 넓은 면적 분포에 걸쳐 적용되었다(27/31개). 4LmK형은 주로 후열부를 4칸 이상으로 분화시켜 후열부에 온돌방 2개

10 당선자는 천호철, 김희춘, 강명구, 박학재 등 근대건축 교육을 받은 건축인이었다. 평면 규모별로 1종(15평 이내), 2종(20평 이내), 3종(25평 이내)의 3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11 유상하, 「국민주택 현상설계 공모도안 조사를 마치고」, 「건축」, 1956. 4. pp.26~27. 및 안영배, 「우리나라 주택건축 30년」, 「건축」, 1956. 4.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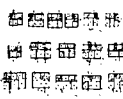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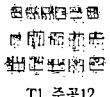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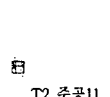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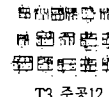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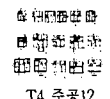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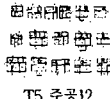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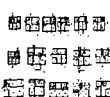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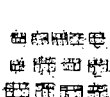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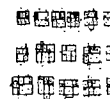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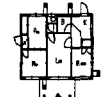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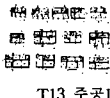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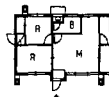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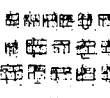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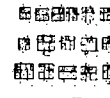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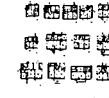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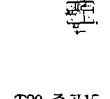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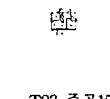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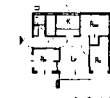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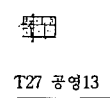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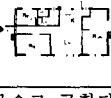
12 1954년경부터 목조에서 흙벽돌주 주택으로, 1957년부터는 시멘트 블록이 적용되고 1960년대에는 시멘트 벽돌과 함께 지붕 등에 일부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급배수 및 난방과 취사설비의 발전이 뒤따라 위생과 취사공간의 변화로 이어졌다.

13 대한주택공사, 윗 책, pp.216~218.

14 공영주택 평면의 적용시 현실과의 차이로 민간인의 요구가 있을 때 기술적인 검토를 얻어 수정, 적용할 수 있었다. 민간인에 주택자금을 대출해 건축하는 '용자주택'의 형식으로 1962년까지 제안되었다.

15 3LmK란 방 3개, 마루(Lm), 부엌(K)으로 구성된 주택평면을 의미한다. 이하 평면구성 표기방법은 동일함.

표 3.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평면 사례 및 분류

년대	1954 ~ 1958	1959 ~ 1963
평면구성	11 ~ 15평	13 ~ 20평
4LmDK		 T17 산은18
4Lm·K		 T15 ICA20  T21 주공18  T22 산은14
3LmDK		 T31 주공20
3Lm/K	 T1 주공12  T2 주공11  T3 주공12  T4 주공12  T5 주공12	 T10 주공13  T11 주공13
3Lm·K	 T6 ICA18  T7 주공15  T8 주공15  T9 주공15	 T12 주공15  T13 주공15  T14 주공18  T16 주공14  T18 주공13  T19 공영15  T20 주공15  T23 주공15  T24 산은18  T25 산은20  T26 ICA20
3LmK		 T27 공영13  T28 주공17  T29 공영14
2LmK		 T30 공영17

주) 마루와 부엌간 연결표시 : Lm/K-직접 연결된 경우, Lm·K-문으로 구획된 경우, LmK- 개방된 경우  
 범례) Rom: 안방, Ro: 온돌방, Lm: 마루 K: 부엌, D: 부엌, t: 화장실, B: 욕실, E: 현관, S: 창고 이하 표기 방법 동일  
 평면의 구분은 도면번호, 설계주체, 평형의 순서 임(주공: 주택공사, 산은: 산업은행, 공영: 주공, 市 등에서 공급)

를 확보한 것이다(3/31개). 전체 평면이 11평에서 20평이라는 큰 면적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온돌방 수가 3개로 계획된 것은, 방수의 증가보다는 방의 적정규모가 확보되는 평면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광복이후의 공영주택 평면은 광복이전의 공영주택과 같이 전열부와 후열부가 결합되는 형식으로 정착되었다. 그 평면구성은 안방, 마루, 건넌방(Rom-Lm-Ro)으로 연결된 전열부와 부엌, 위생공간 그리고 온돌방(K-Bt-Ro)의 후열부가 결합된 형태이다. 후열부는 부엌의 위치와 현관, 온돌방, 위생공간의 조합방식과 동선의 연결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셋째, 시대별 공간특징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부엌과 마루가 분리된 형에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식침분리형 평면이 성립되었고,<sup>16)</sup> 부엌과 마루와 연결된 형(LmK형)이 제안되었다. 평면공간구성이 2LmK에서 4LmDK형까지 다양해졌다.

이와 같이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이 면적 규모에 따라 평면의 계열화가 일정한 패턴으로 이루어졌다면, 광복이후에는 시대별, 규모별로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복합적인 변화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광복전후 평면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평면변화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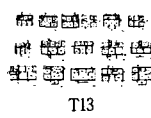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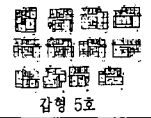

### 3. 광복전후 공영주택의 평면 비교

#### 3-1. 주택형식의 변화

우리의 재래주택은 채와 마당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채는 마루와 온돌로 구성된다. 채는 대개 홑집을 기본형으로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안마당을 포함하는 고유한 형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전후에 주택변화 과정을 거치며 형식과 내용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재래주택과 공영주택의 비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채와 마당의 결합형식이 外庭을 가진 겹집형으로 변해 평면 형식과 내용도 달라졌다.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은 전열부에 주요 거주공간이 배치되고, 후열부는 속복도를 포함한 보조공간이 배치된 공간구성 방법이다. 광복이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전열부와 후열부가 결합된 평면이 제안되었다. 규모에 따라 3~4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전후열의 실요소 구성에서도 광복이전의 공영주택 구성방법과 공통점이 있다(표4). 이러한 유사성은 광복이전 공영주택 평면의 영향을 받아 겹집화된 평면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 광복전후 공영주택 평면 형식의 유사성

구분	광복이전의 공영주택	광복이후의 공영주택									
후열부	<table border="1"> <tr> <td>K</td> <td>Bt</td> <td>Rd</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속복도</td> </tr> </table>	K	Bt	Rd	속복도			<table border="1"> <tr> <td>K</td> <td>Bt</td> <td>Ro</td> </tr> </table>	K	Bt	Ro
K	Bt	Rd									
속복도											
K	Bt	Ro									
전열부	<table border="1"> <tr> <td>Ro</td> <td>Rd</td> <td>Rd</td> </tr> </table>	Ro	Rd	Rd	<table border="1"> <tr> <td>Rom</td> <td>Lm</td> <td>Ro</td> </tr> </table>	Rom	Lm	Ro			
Ro	Rd	Rd									
Rom	Lm	Ro									
방3개형	 <p>용형 5호</p>	 <p>T13</p>									
방4개형	 <p>갑형 5호</p>	 <p>T17</p>									
규모	약 20평 규모	약 15평 내외 규모									

형식적인 측면 외에, 재래주거문화의 관점에서 광복전후 공영주택 평면을 비교해 보면, 각각 배경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은 생활주체가 주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재래주택의 평면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통적인 평면 특징은 채내부를 家長의 집객공간인 자시키(座敷)<sup>17)</sup>와 쯔즈끼마(續き間)<sup>18)</sup>가 있는 오모테(表) 영역과 자녀, 단란에 해당하는 차노마(茶の間)<sup>19)</sup>에 해당하는 우라(裏)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sup>20)</sup> 두 영역

17 집객 등에 사용되는 家長의 방  
 18 자시키와 인접된 다다미방. 자시키와 미서기 문으로 연결된 경우를 쯔즈끼마 자시키라 함.  
 19 가족실 또는 식사실의 기능을 하는 다다미방.  
 20 西山宛三, 윗 책, pp.16~19.

간은 칸막이나 미서기문으로 구획되어, 생활내용에 따라 칸(間)을 수시로 개폐시킬 수 있다. 실제생활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家長위주의 생활이 우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생활중심의 住要求와 자시키(座敷), 쯔즈키마(續き間)의 주요 생활공간을 전열부에 구성하고 우라(裏) 영역인 후열부는 부엌, 위생공간과 식사공간을 겸하는 차노마(茶の間) 등이 포함된 보조공간으로 분리되었다. 일본 재래주택의 表裏 영역이 통합된 공간에서 숙박도로 전후열 간의 영역분화가 된 근대도시주택이다.<sup>21)</sup> 단지 한반도의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다미방 한 개소에 한해 온돌을 적용하였다(표5).

표 5. 광복이전 공영주택의 평면 개념

구분	일본 재래주택개념	근대화된 숙박도형 주택 개념	광복이전 공영주택의 기후환경적응
평면 변화 개념			
특성	통합공간	전·후열부 분화	온돌방의 도입

반면에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바탕이 되는 재래주택은 대개 '안방-마루-건넌방'과 안방에 연결된 '부엌'이 포함된 안채 구성 요소를 가진 홑집형 평면이었다.<sup>22)</sup> 여기에 마당을 매개로 해서 경제력, 신분, 농경생활의 필요에 따라 칸(間)을 부가하거나 별도의 채로 분리하는 형식을 갖추고

21 나머지 실들은 주택 규모의 축소로 대부분 생략되었다.  
 22 우리나라 재래주택의 지역적 특성을 간단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지역에 마루가 있었고 호서지역과 남부지역의 일부 민가와 경제력에 따라 마루(또는 대청)가 없는 경우가 있다. 부엌도 안채와 一字型을 이루는 남부지방(영남지방) 민가와 ㄱ자형을 이루는 서울·중부지방 민가와 차이가 있다.

있었다.<sup>23)</sup>

광복이후의 공영주택의 경우는 온돌과 마루를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는 도시 환경에서 옛 안채생활의 중심이었던 부분을 거주환경이 양호한 전열부에 배치하였다. 후열부에는 부엌, 욕실, 화장실을 포함한 현관과 같은 근대적 주거요소를 수용하여 완성하였다. 그 결과 광복이후의 공영주택은 채를 결합한 형태와 같은 평면이 되었는데, 재래주택의 안채가 갖는 구성요소를 전열부에, 규모나 실구성상에 융통성을 갖고 있는 바깥채 개념을 후열부에 결합한 형식으로 변용된 것이다.<sup>24)</sup>

표 6. 재래주택의 안채와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전열부 개념

구분	재래주택개념		광복이후 공영주택
	안채개념	평면사례	
평면 변화 개념		<p>서울·중부지방 민가</p>	<p>남부지방(영남지방) 민가의 안채</p>
특성	안마당과 연결된 안채와 바깥채		겹집화 현상, 부엌의 위치변화

자료: 조성기 논문, p.62, 박정현 논문, p.81

그러므로 광복전후의 공영주택은 공통적으로 전열부에는 재래주거 요소를 지속시키고, 후열부에는 근대적 住樣式을 반영시켜, 재래의 문화적 기반과 함께 근대적 생활양식을 동시에 수용하는

23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도시형 한옥'은 재래주택에서 근대 도시주택으로 변화된 형태라 볼 수 있다.

24 한편 공영주택 사례 중 일부는 광복이후에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대개 거실을 포함한 LDK형이라 불리는 가족의 공용공간과 독립성이 강한 개인적 공간인 사적 용도의 '침실'로 공간이 구분된, 公·私 분리형 평면과 유사하게 변용된 절충적인 평면 사례도 조사되었으나,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중적인 평면구조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에서 본다면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은 속복도에 의해 일본의 전통적인 表裏공간을 기능적인 主副공간으로 분리시킨 형식인 반면에, 광복이후의 공영주택은 재래문화를 지속시킨 안채와 근대적 변화를 바깥채에 수용하는 대응 개념이 '결합'된 형식이므로 평면 내용이 차별화된다.

3-2. 주거 내용의 변화

재래주택에 비해 공영주택은 표면상 큰 변화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온돌과 마루라는 재래 형식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온돌과 마루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광복이후 공영주택 평면의 변화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마루와 출입관계의 변화

온돌방은 아궁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엌 아궁이의 위치가 방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준다. 반면 마루는 다다미방과 같이 사회적인 公의 생활 공간에 포함되며 현관과 함께 내부의 출입동선 구성과 관련되므로, 전·후열부의 실 결합과 관련된 주거요소이다. 따라서 온돌과 마루의 변화 과정은 광복전후의 공영주택을 차별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먼저 마루를 포함한 公의 공간의 내부출입동선을 중심으로 광복전후 주택을 비교해 보면 평면의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광복이전 공영주택에서 公의 생활 공간은 속복도로서의 내부동선 공간과 다다미를 설치한 방<sup>25)</sup>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전열부의 다다미방은 보통 실 크기가 다른 자시키(座敷)와 쓰즈키마(續き間)가 연결되어 있고, 바닥과 공간의 성격은 등질적이다. '자시키'에는 일상시에 家長이 기거하고 가족생활도 이루어지지만, 접객행위가 발생될 경우는 '쓰즈키마'와 연결해 家長과 客의 공간으로 이용되며 가족은 온돌방으로 옮겨가거나 속복도를 경계로 우라(裏)의 영역으로 물러나게 되어 영역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이때의 온돌방은 가족의 私的인 공간이지만, 자시키는 위

계와 격식이 중시되는 사회적인 公의 공간으로 변화되므로 다다미방은 행위중심별로 활용될 수 있는 等質의인 공간이다.

그러나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마루는 속복도의 통행기능뿐 만 아니라 의례와 접객, 가족생활 등이 마루 공간에 통합되어 융통성 있게 활용되었다. 더욱이 전열부의 마루 좌우편에 안방과 건넌방을 世別로 독립된 기거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어 광복이전 주택 평면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광복전후에 걸친 내부동선 공간과 관련된 평면의 변화 특징을 종합하였다(표7).

표 7. 광복전후 공영주택의 내부동선과 평면변화

구분	평면변화 개념	평면사례
광복이전 속복도형 1941~45	<p>현관과 속복도로 연결된 선형적 동선</p>	<p>갑형 7호</p>
마루+속복도형 1956~63	<p>영향 현관과 마루 동선의 연결</p>	<p>T13</p>
광복이후 마루형 1958~63	<p>도착화 출입동선 현관과 공적공간의 통합</p>	<p>T7 T29</p>

첫째, 공영주택 평면의 내부동선으로 본 평면변화는 광복이전의 '속복도형'에서 광복이후에는 점차 '속복도+마루형'과 '마루형'으로 평면사례가 나타났다(표7).

'마루형' 평면이란 내부공간은 광복이전의 전·후열부가 칸막이나 속복도로 분리된 평면과는 달리, 광복이후에 나타났는데, 전·후열간의 마루와 부엌이 공간이 연결되어 마루가 내부동선의 중심

25 다다미가 대량생산되었던 겐로쿠시대(1680~1709) 이전에는 다다미는 돛자리와 같은 가구의 일종이었다.



이 되는 평면형을 의미한다.

이 평면형은 마루와 인접된 부엌이 평면의 중앙부의 전후열 위치에 연결되어 개방적인 내부공간을 갖고, 그 좌우변에 방과 보조공간이 배치되어 내부공간이 실로 채워진 모양을 갖추게 된다(표7, T29). 이는 서구의 公·私공간분리형 평면의 영향도 일부 작용하였겠지만 발생 원인을 재래주택과의 관계에서 찾는다면, 겹집형태 내에서 주택내부 중앙을 개방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재래의 흘집의 마루공간과 유사하게 내부공간을 재구성하여 활용한 것이라 보인다. 이는향후에 거실과 부엌을 중심으로 가족단란공간이 확보되고 각 실의 독립성도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거실형’<sup>26)</sup> 평면형으로 변화되는 전조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마루형’ 평면은 각 실의 접근동선이 짧고 편리한 기능을 추구한 결과로 나타난 평면이라 할 수 있고 마루와 온돌방이라는 각 영역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공간과 생활행위의 대응에서 더욱 융통성이 수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광복이전의 다다미방이라는 균일한 공간에서 접객 또는 가족의 생활행위를 택일해서 사용되었던, 용도상 융통성을 가진 ‘속복도형’ 평면과는 차별된다.

광복이후에,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에 한국인이 기거하며 변용시킨 평면 변용 사례(그림 2)<sup>27)</sup>에서 문화적 차별성이 나타난다. 특히 전열부에 대해 속복도형의 구성(Rd-Rd-Ro)이 재래식 마루형 구성(Rom-Lm-Ro)으로 전환된 사실에서 주택평면에 나타난 문화적 지속성과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재래의 外庭型에서 外庭型 주택으로 변화 과정이 반영된 외부로부터 각 실까지의 동선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평면특성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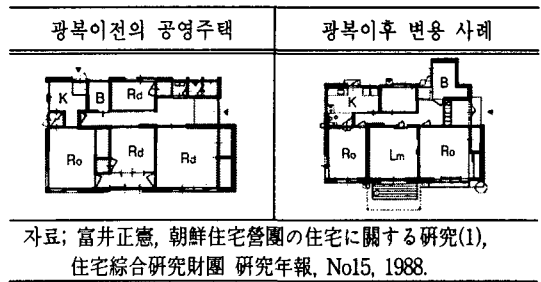


그림 2.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변용 사례

먼저, 외부와 내부의 동선변화를 중심으로 평면변화와 관련된 특징을 들 수 있다.

현관은 광복이전의 후면진입형(7/10개)이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까지 계속 제안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는 전면출입형(12/22개)과 측면진입형(6/22개)이 다수 등장하였다(18/22개, 표3, 표8). 측면진입형은 아궁이와 구들이 연결된 구조로 인해 안방과 부엌의 두 실이 항상 연결되는 이유로 안방의 건너편에 현관이 계획된다. 따라서 내방객의 현관 진입시 부엌과 안방은 시선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고, 대문과 부엌사이에 있었던 재래의 宅法을 반영될 수 있었다. 측면 진입형의 평면의 경우 마루로 통하는 별도의 전면 출입문이 있어 실제 사용은 전면과 측면 출입을 병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출입 방향은 재래주택 안마당 출입방식에서 광복 이전에는 후면출입형이 되었다가 광복이후에는 전면이나 측면 출입방식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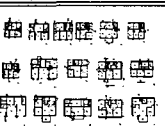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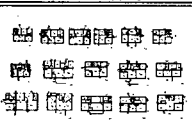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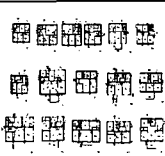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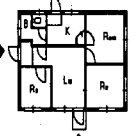
또한 안마당을 갖고 있었던 재래주택은 대문칸, 안마당, 마루를 거쳐 각 방으로 진입하는 동선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마당은 생활기능이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역할뿐 만 아니라 채와 채 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이후의 공영주택에서 채와 채 사이를 연결하는 안마당의 동선이 내부의 전열부와 후열부를 연결하는 마루로 축약되고, 외부의 대문에서 칸에 이르는 출입경로가 현관으로 내부화되고 압축되었다. 자연히 안마당의 복합적인 기능 중 일부가 마루의 기능으로 중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6 ‘마루형’은 광복 이후 입식 부엌이 정착되기 이전에 재래주택이 겹집화되면서 공영주택에 채용한 평면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거실형’ 평면이란 재래주택에 없었던 公·私室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거실을 중심으로 가족단란공간이 정착되어 있는 평면형을 의미하므로 ‘마루형’ 평면과는 발생 배경과 특성이 차별화 된다.

27 富井正憲, 朝鮮住宅營團의 住宅에 關する 研究(1), 住宅綜合研究財團 研究年報, No15, 1988, pp132-133.

결국 홑집의 채와 마당, 온돌과 마루를 통해 내외공간이 交差되었던 재래주택에서 外庭을 갖는 겹집화된 형식으로 변모해 내부지향적이고 기능적인 주택이 되었다.

표 8. 현관출입방향과 평면의 관계

평면 사례	후면출입형	측면출입형
		
	전면출입형	전면·측면출입형
		

(2) 온돌방과 부엌의 관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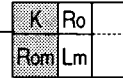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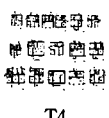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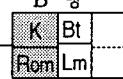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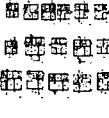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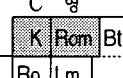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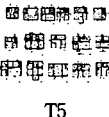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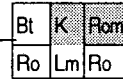

부엌과 온돌방은 아궁이 구조로 결합된다. 부엌과 온돌방의 관계 변화를 통해 공영주택 평면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복이전 공영주택 평면의 공통된 특징은 후열부에 熱源을 가진 부엌을 배치하였고, 부엌과 인접된 측면방향으로 욕실을 배치하고 전면방향으로 온돌방을 두는 결합관계가 지켜졌다. 광복이전의 평면에서 나타난 부엌 주변의 공통된 결합요소 부분이 광복이후의 평면(표9, B형)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광복이후의 공영주택 평면에도 후열부에 부엌이 배치된 원인은 광복이전의 공영주택 평면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궁이의 난방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배려라 볼 수 있다. 즉, 대지규모의 축소로 전면 칸수가 한정됨으로써 평면이 집약화 되는 과정에서 채광, 통풍조건이 양호한 전열부에 안방을 배치하고 안방의 후열에 부엌을 연결시켜, 온돌방과 함께 7자 형태(표9, A~C형)로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난방관리가 가능하였다<sup>28)</sup>. 초기의 평면사례(표9, A

형)로는 아궁이 구조를 중심으로 겹집화시킨 1950년대의 초기 단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엌에서 다른 방을 경유해야 마루로 접근 가능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후열부의 부엌 옆에 위생공간, 안방, 온돌방 등이 인접하게 되어 다양한 변화형(표9, B~D형)이 제안되었다. 특히 1960년을 전후로 해 후열부에 부엌과 안방을 배치된 평면(표9, C형)은 특기할 만하다. 안방과 마루 사이 미서기문을 설치해 주택의 전후열 방향으로 실내공간을 융통성 있게 해서, 제사 등의 의례나 접객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얻을 수 있는 평면형이다.<sup>29)</sup>

표 9.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부엌, 안방, 마루방의 관계변화

구분	평면변화 개념	평면사례
1956~59	변화 A형 	 T4
	부엌-난방관리	
1958~63	변화 B형 	 T12
	부엌-마루 동선확보	
1958~62	후열부에 부엌배치 C형 	 T5
	넓은 안방 확보	
1960~63	변화 D형 	 T29
	근대화된 부엌설비의 적용	

또 난방기술의 뒷받침으로 부엌과 내부공간과의 바닥차가 없어지면서 부엌이 후열부의 중심으로 이동되며 마루와 직접 연결되는 평면형(D형)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초반에는 부엌설비의 개선으로 마루와 바닥차 없이 상호 개

28 모든 평면은 부엌에 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건넌방 쪽의 외부 아궁이 관리를 위해 필요하였다.

29 이 평면은 근대화 과정에 넓은 실내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홑집 민가의 전면 뒷마루 부분을 마루와 방을 증축해서 사용하는 민가의 증축사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된 새로운 평면<sup>30)</sup>형(LmK형, T29)이 나타났다<sup>31)</sup>.

이러한 평면계열은 1960년대 후반, 마루와 부엌이 연결된 공간에서 가족중심 지향의 근대적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루와 내부동선과의 관계 변화는 통행에 필요한 약 7~10㎡를 차지하는 속복도 면적을 마루로 흡수해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광복전후의 공영주택 평면이 달라지는 원인이 된다.

### 3-3. 광복전후 공영주택의 변화 의미

공영주택의 영향을 받아 재래주택의 형식은 외형적으로 전열부와 후열부로 겹집화 되는 큰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 온돌과 마루는 그 존재가 지속되었으며 추가적인 변용을 통해 발전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광복전후의 공영주택 평면이 갖는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 주택변화의 의미를 조망해 볼 수 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공영주택은 대개 속복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表裏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광복이후 한국인의 거주를 위한 공영주택은 외형상 유사성을 보이지만, 실은 안채와 바깥채가 전면과 후면으로 결합된 형태로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영주택은 후열부에 새로운 주거요소를 수용하고 겹집화 되었지만, 전열부는 재래주택의 질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열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향후의 평면 변화의 지향성과 의미가 달라졌다.

즉,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의 평면구성은 재래의 表裏공간이 속복도에 의해 주공간과 보조공간으로 분리된 것이다. 전열부인 주공간은 독립성보다는 가변적인 칸막이로 생활공간을 제어함으로써, 전열부에서 일어나는 접객 등의 생활내용에 따라 어느 한쪽은 상대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

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속복도로 영역간의 동선을 분리해 기능적 관계의 主副공간으로 분화시켰지만, 전열부의 영역 내에 가족과 접객공간으로 表裏공간을 다시 축소해 내재시킨 일본의 축소지향적인 문화가 반영된 주택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광복이후의 공영주택은 형식적으로는 안채개념과 바깥채 개념을 전·후열부로 결합시켜 성립시킨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전통주거환경과는 달라진 여건에서 마루와 부엌의 관계를 시대양식에 적합하게 분화시켜 토착화한 것이다. 이를 ‘속복도형’ 평면과 달리 ‘마루형’ 평면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마루형’ 평면은 근대의 주의식이 반영된 가족단란을 포함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생활 내용이 복합적으로 조합될 수 있어, 개별적인 실의 독립성을 허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마루공간을 중심으로 ‘통합’된 구조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광복전후의 공영주택평면이 갖는 차별화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4. 결론

광복전후에 있었던 공영주택평면간의 비교를 통하여 근대의 이행기 속에서 우리 주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광복이전의 공영주택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의 근대주거문화에 기반을 둔 평면형이 ‘이식’된 것으로 향후 주택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 과정은 일차적인 문화접촉 단계로 한국의 재래 홑집식 안채에 현관, 위생공간 그리고 부엌의 변용 등이 가세하여 겹집형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뒤이은 광복이후 공영주택에서는 재래 住文化를 기반으로 하는 土着化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근대교육을 받은 건축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해 주택형을 제안하다가 점차 입주자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재래주거문화를 기반으로 근대성을 반영한 새로운 住樣式이 성립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에 공감을 얻을

30 1962~1963년 사이에 나타났으나 설비 수준의 미비와 재래식 부엌에 대한 주부들의 선호도로 1964년부터 제안되지 않았다. 온수배관방식이 적용되는 1968년 이후에 현실화되었다.

31 전반적으로는 부엌과 안방이 연결된 동선을 갖는 계획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간단한 아궁이의 개조와 비용이 저렴한 연탄을 이용한 재래식 아궁이가 1960년대까지 채택되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수 있는 도시주택유형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2. 광복전후 공영주택 평면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열부와 후열부로 결합된 형식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전열부에는 재래문화가 지속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후열부에는 취사나 위생 등 근대적 생활공간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병치되어 있어, 재래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평면구조이다.

그러나 평면 내용상으로는 온돌과 마루, 안방과 부엌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평면이 나타났다. 즉, 온돌방과 아궁이 연결구조가 점차 풀리면서 광복 이전의 '속복도형' 평면에서 主婦生活 공간으로 폐쇄된 부엌과는 달리 광복이후에는 전열부의 마루공간과 연결되어 가족생활 중심적인 '마루형' 평면으로 도착화된 것은 문화적 차별성을 반영한 것이다.

3. 광복전후 공영주택 평면의 변화의미를 비교하면, 광복이전의 공영주택 평면은 일본의 전통적인 表裏공간을 속복도로 분리시켜 근대적인 主副공간으로 구획한 반면, 광복이후의 공영주택 평면은 재래주택의 안채와 바깥채 개념을 각각 전열부와 후열부로 결합해 마루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통합'시켜 재래질서를 새로운 질서의 형식으로 틀을 짜 지속시켜 왔다. 때문에 광복전후 공영주택의 형식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평면의 문화적 차별성이 평면에 반영되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광복이후 공영주택은 외래의 형식을 재래의 내용으로 새롭게 도착화시켜왔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한국주택의 근대화 과정이 응축되어 있는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제한된 자료와 관점에서 진행된 한계를 갖지만, 근대기에 나타난 광복전후의 공영주택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택평면의 변화 속에 우리의 住樣式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시켜 온 과정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대기의 주택변화는 과거와 현재의 생활이 연결되는 과정이 함축된 고리와 같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평면 유형의 변화에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자료와 바탕에서 진행 될 수 있었고, 향후에도 다양한 시각과 자료로 폭 넓게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의 주거문화를 더욱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노력이 계속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大韓住宅公社, 『大韓住宅公社 二十年史』, 大韓住宅公社, 1979.
2. 鈴木成文, 『現代日本住居論, 현대 일본 주거 읽기』, 이현희 역, 도서출판국제, 1999.
3. 梅棟忠夫 編, 『日本人の生活, 일본인의 생활』, 김양선 역, 혜인, 2001.
4. 西山宛三, 『日本のすまい- 式』, 勁草書房, 1976.
5. 建築学大系 編集委員会, 『建築学大系 7, 住居論』, 彰国社, 1987.
6. 川端貢, 『조선주택영단의 주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7. 조용훈,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4.
8. 박정현, 『해방이후 혼란기의 주거건축 동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1.
9. 안성호, 『日帝强占期 속복道型 日式住宅의 移植과 影響에 관한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1997.
10. 曹成基, 『韓國 「南部地」 民家に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3호, 1991.
11. 曹成基, 『韓國 共同住宅 單位 平面의 分析的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2, 1978.6.
12. 富井正憲, 『朝鮮住宅營團の住宅に關する研究 (1)』, 住宅綜合研究財團 研究年報, No15, 1988.
13. 空間, 『公營住宅 平面圖集』, 1969. 1, 2, 3.
14. 大韓建築學會, 『建築』, 1956. 4.
15. 大韓建築學會, 『建築』, 1966. 3.

# A Study on the Comparison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Standard Housing Unit Plan before and after the Independence from the Japan Occupation

Yoo, Jae Woo

(Full-Time Lecturer, Dongseo University)

## Abstract

Even though there have been greate changes in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housing plan in Korea since the Modern age, it seems that the identity of traditional dwelling culture is still remains within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in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Standard' Housing Unit Plan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unit plans in housings built on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ose built after the period.

From the study, we can conclude as follows:

1. The public standard housing unit plans on both periods have shown the common features in the composition of their physical forms in the way that the front-row area still remains the traditional housing culture and the rear-row area reflects the desires of the modern lives. The structure of the dual-row unit plan appeared in the public standard housing plan was caused by the cultural acculturation in Japanese occupation period.

2. The public standard housing unit plans, however, show th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meaning in units plans with the them of the Japanese housing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These differences took placed autonomously through the change of housing plans in the modern time, and have the common features such that 1) the changes in the Maru-centered plan type differ in composition from the inner-corridor plan type used Japanese housing, and 2) the composition of the open-inner spaces in the double-row housing plan reflects the single-row outer open space in the traditional housing.

All of these cultural progresses in the public standard housing unit plans was took place as the result of the inner-oriented and functional circulations derived from the modernity. However, the transformed unit plans still contains the identity derived from the vari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building elements such as Maru and Ondol. In other words, those are the Maru-centered and composed housing plans with juxtaposition of the inner block and the outer block. As the conclusion, though the public standard dwelling unit plan has the similarity in the physical form, it is different in the cultural identity and meaning from the public standard plans before the independence from the Japan occupation.